

글로벌 제주를 위한

#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36



#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經濟新聞

※ 대상 기간 : 2025.04.10.-2025.04.16

|  |    |
|--|----|
| ①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 1  |
| ②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                     | 6  |
| ▪ 중국   |    |
| – 칭다오, 재생에너지 개발 속도 높여 저탄소 전환 가속 .....          | 7  |
| – 스마트 교통 표준화 시범 프로젝트 출범 .....                  | 7  |
| – 선전, ‘구체화된 인공지능’ 미래 산업 선점 의지 .....            | 8  |
| – 중국, 가상발전소 대규모 구축...2030년까지 5000만 kW 목표 ..... | 8  |
| – 하이난 자유무역항, 글로벌 투자 유치...265건 계약 체결 .....      | 9  |
| – ‘중국 대외 상품무역 및 공급망 변동 지수’상하이서 발표 .....        | 9  |
| – 국무원,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 시범’ 가속 계획 승인 .....        | 10 |
| – 중국 최초 지역 간 수소 화물차 노선 운행 시작 .....             | 10 |
| – 신세대 석탄발전 업그레이드로 전력 안전·산업 전환 촉진 .....         | 11 |
| – 시장감독총국, 민영기업 지원 대책 37개 항 발표 .....            | 11 |
| ▪ 일본   |    |
| – 나고야역 남쪽 ‘사사시마’ 연결 지하도 구상 본격화 .....           | 12 |
| – 파나소닉에너지·고베시, 하수 가스로 물류 탈탄소화 추진 .....         | 12 |
| – 도토리현, 계 어획량 6년 만에 증가 .....                   | 13 |
| – 아이치현, 인구 5년 연속 감소, 외국인 30만 명 돌파 .....        | 13 |

- 홋카이도에너지, 하코다테서 전동 자전거 공유 실증 실험 ..... 14
- 미래우주수송, 홋카이도대 발 ‘레타라’와 로켓 엔진 협업 ..... 15
- 트럼프 관세 여파 조사, ‘비용 절감’ 등 대응책 등장 ..... 15
- 가와사키중공업, 도심 항만서 연어 양식 시스템 개발 ..... 16
- 칸사이‘이동 슈퍼’성장, 153만 명 고령층 ‘쇼핑 난민’ 지원 ..... 16
- TSMC 효과로 큐슈 반도체 생태계 구축 가속,‘새 실리콘아일랜드’구상 ..... 17

■ ASEAN

- 아세안, 지리경제학 태스크포스 설립으로 관세 갈등 대응 ..... 17
- 아세안과 영국, 고위관리회의 통해 미래 협력 강화 ..... 18
- 아세안+3, 긴급자금지원제도 운영 개시 ..... 18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미국 관세 모니터링 통해 반도체 산업 보호 계획 ..... 18
- 말레이시아 제조업연합, 미국 관세 유예 기간 정부 전략 수립 촉구 ..... 19

■ 베트남

- 베트남, 미국 관세 유예 이후 무역협상 개시 ..... 19

■ 태국

- 태국, 미국과의 무역 협상 전략 수립 추진 ..... 20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 협력 강화 추진 ..... 20

- **캄보디아**
  -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국가 간 QR 결제 시스템 2단계 출범 ..... 20
  
- **필리핀**
  - 필리핀, 글로벌 경제 위험 속 기준금리 인하 ..... 21

#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 중국

- ✓ 칭다오 고신구가 재생에너지 난방, 잉여열 회수, 그린전력 배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석탄 15만 톤 절약, 이산화탄소 37만 톤 저감 성과 달성 및 약 3500만 위안 가치의 탄소 배출권 창출
- ✓ 중국 교통운수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스마트 교통 표준화 시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물류, 출행, 신형 인프라 영역에서 25개 프로젝트 선정하여 스마트 물류, 출행, 인프라 분야의 표준화 규범 발전
- ✓ 선전시가 '구체화된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 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로봇기업들과 협력하여 사람 형태 로봇, 지능형 센싱 기술 개발 및 산업, 가정, 서비스 영역 적용 추진과 자금 조달, 상장 루트 마련 지원
-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이 가상발전소 확대 지침 발표하여 2027년까지 전력 조정 능력 2000만kW, 2030년 5000만kW 달성 목표와 민간 자본 참여, 기술혁신 장려, 금융·정책 지원책 마련
- ✓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세계 500대 기업 등과 265건의 프로젝트 계약 체결하고, 봉관(특수지역으로 완전 분리) 운용 앞둔 2025년 기점으로 대폭 개방 강화 전망하며 관광업, 현대 서비스업, 하이테크 산업, 열대 특색 농업 등 4대 핵심 산업 위주 사업 환경 최적화
- ✓ 상하이 푸단대학교 연구팀이 중국 대외무역 변동 지수와 공급망 관계 변동 지수를 발표하여 중국과 주요 무역 파트너 간 무역 추이를 분석하고 구조적 변화와 변동성을 시계열로 추적하여 기업과 정책 당국의 효율적 대응 지원

- ✓ 중국 국무원이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원칙적 동의하고 9개 도시를 추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여 서비스업 규제 혁신, 국제 경제·무역 규범 연계, 초대형 시장 잠재력 발휘 중점 추진
- ✓ 충칭-구이저우-광시 노선에 수소 화물트럭 10대가 첫 운행을 시작하고 4개 수소충전소 구축으로 안정적 보급망 확보하며 2027년까지 충전소 40여 곳, 수소 트럭 1500대 이상 보급과 연간 20만 톤 이상 탄소 절감 목표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에너지국이 신세대 석탄발전 업그레이드 특별 행동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고효율·저탄소·유연 운전 중심의 '삼개 연동' 정책을 강화하여 배출 감축과 유연성 향상에 대한 차별화 목표 제시
- ✓ 중국 시장감독총국이 민영기업 지원 강화와 규제환경 최적화를 위해 37개 조치를 포함한 중점 조치 목록을 발행하고 불공정경쟁 방지, 진입 장벽 해소, 온라인 광고 합규 지원, 지식재산 보호, 기업 등록수수료 인하 등 다방면 정비 조치 진행

## ○ 일본

- ✓ 나고야시가 나고야역과 사사시마 라이브를 약 300미터 길이의 무빙워크 포함한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사업에 돌입하여 보행 이동성 개선, 관광 유입 확대, 재난 시 대피 경로 활용을 목표로 2032년 완공을 위해 2025년도 사업자 선정 준비 착수
- ✓ 파나소닉에너지와 고베시가 2025년도부터 하수 처리장 바이오가스를 물류 트럭 연료로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실질 제로화를 추진하고, 향후 다른 지역 하수처리장과 연계를 통해 탈탄소 물류 거점 확대 계획
- ✓ 도토리현에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게 어획량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533톤을 기록하여 6년 만의 상승세 보이며, 조업자들의 어린 게 포획 자제 자율 규제 강화로 자원 회복에 성공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 정착

- ✓ 아이치현 인구가 5년 연속 감소하여 약 746만 명으로 자연감소 현상이 주된 원인이며, 일본인 인구는 감소했으나 외국인도 증가하여 총 30만 명에 도달함에 따라 젊은 여성 유출 방지, 외국인 재원 유치 등 인구 감소 문제 완화 노력 진행
- ✓ 홋카이도에너지가 하코다테시와 협력해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13개 거점에 배치하여 도시 내 이동 편의 증진 시도하고, 인구 감소와 대중교통 축소가 진행되는 지방 중소도시의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3년간 실증 운용 후 장기 사업화 모색
- ✓ 미래우주수송시스템과 홋카이도대학교 기술 기반 벤처기업 레타라가 안전성과 연소 효율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공동 개발에 나서 2025년 말 실증 시험 시작 후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며 차세대 로켓 개발을 통한 상업 위성 발사 사업 본격 진출 계획
- ✓ 이바라키현 조요은행의 산업연구소가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 조사 결과, 74.2%의 기업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비용 절감, 투자 계획 수정 등 대응책 마련 중으로 대미 수출 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지역 경제에 파장을 미치는 상황
- ✓ 가와사키중공업이 도시 항만에서 양식 가능한 '미나토마에 시스템'을 개발, 해수 여과·살균 후 산소 주입해 밀폐형 가두리 순환 방식으로 연어 등 수요 많은 어종을 고품질로 도심 인근에서 양식함으로써 물류 비용 절감과 안정적 생산 실현
- ✓ 칸사이 지역에서 경트럭으로 상품을 실어 판매처를 찾아가는 '이동 슈퍼'가 활성화되어 식료품점과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약 153만 명을 지원하고 대중교통 노선 축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대응하는 지역 경제 보완 역할 수행
- ✓ TSMC 구마모토 공장 양산 시작으로 큐슈 지역이 반도체 산업 부흥과 로봇·AI 등 다른 산업과 결합한 사업 기회 창출에 기대를 높이고,

기업·대학·지자체 협력으로 반도체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투자 인센티브 마련 등 반도체 생태계 구축 가속화

## ○ ASEAN

- ✓ 아세안 경제장관들이 미국 관세 영향 대응을 위해 지리경제학 태스크 포스 설립에 합의하여 무역·투자·공급망 안정성 도모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관세 분쟁 요인 분석, 무역 구조 재편, 투자 다변화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발굴로 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 ✓ 아세안과 영국이 제4차 고위관리회의에서 2022~2026 행동계획 이행률 95% 달성 성과를 공유하고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 지속 확대와 해양안보·사이버안보·대테러 등 안보 협력 강화 및 디지털경제·녹색금융 등 경제 분야 공동 발전 강조
- ✓ 아세안+3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원국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지원제도를 공식 출범하여 역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치앙마이 다자화 이니셔티브와 함께 유동성 부족 문제 대응 체계 보완 및 미국 관세로 인한 역내 경제 부담 대비 회복력 향상 논의

## ○ 말레이시아

-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보호 의지를 표명하며, 국가반도체전략 재원 마련, 신산업발전계획 2030 연계, 통합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 등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가 경제 개혁 가속화
- ✓ 말레이시아 제조업연합이 미국의 90일 관세 유예가 최종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한 정부 차

원의 적극적 전략 마련을 요구하고, 고무제품·기계·전자 분야별 맞춤형 조치, 판매서비스세 범위 확대 연기, 국가공급망위원회 설립 등 제안

## ○ 베트남

- ✓ 베트남이 미국의 46% 관세 부과 유예 직후 미국 무역대표부와 무역협정 추진에 합의하여 관세 합의 등 상호 이익 극대화 제도 구축에 착수하고,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대미 무역 구조 형성을 지원하는 호혜적 경제 협력 기반 마련을 핵심 목표로 설정

## ○ 태국

- ✓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이 미국 관세 정책에 대비해 국익 보호와 상호 호혜적 결과를 위한 무역협상 전략 마련을 선언하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비관세장벽 완화, 원산지 심사 강화 등 5대 핵심 의제 설정과 1~5년 내 실질적 합의 도출 노력

## ○ 인도네시아

-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글로벌 사우스 대표 두 나라의 책임 있는 역할을 제안하며, 팔레스타인 독립,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등 국제 현안 공동 대응과 경제·보건·에너지·국방·건설·문화 등 폭넓은 분야 파트너십 강화 추진

## ○ 캄보디아

- ✓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이 양국 간 QR 결제 시스템 2단계를 공식 출범하여 약 700만 명 이상 상인들의 상호 시장 접근성 향상과 관광 분야 및 중소기업 성장 기회 확대를 통한 역내 금융 통합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

## ○ 필리핀

- ✓ 필리핀 중앙은행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5.50%로 조정하고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 균형을 추구하는 가운데, 3월 물가상승률 5년 만의 최저치 1.8% 기록으로 국내 소비 진작 및 투자 활성화 기대와함께 미국 관세 등 대외 요인 부담 완화 노력 전개

## 2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중국 | <p>○ <b>칭다오, 재생에너지 개발 속도 높여 저탄소 전환 가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둥성 칭다오(靑島) 고신구(高新区)가 열공급 과정에서 오염물·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난방과 잉여열(余热) 회수 등을 적극 도입하며, 그린전력(綠電) 배가(倍增) 프로젝트까지 병행 추진</li> <li>- 지표수열원(地表水源)·공기열원(空氣源) 열펌프 등을 활용한 에너지센터를 통해 138만㎡ 이상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고, 매년 석탄 15만 톤 절약과 이산화탄소 37만 톤 저감 성과 달성. 이 과정에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은 시장에서 약 3500만 위안 가치 창출</li> <li>- 2022년 이후 신규 난방구역 중 44%가 재생에너지를 적용함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량을 연간 1만2494톤가량 줄이고 전력 2725만 kWh를 절약. 태양광발전(光伏發電) 설비도 총 70MW 이상 구축해 기업의 ‘녹색전력’ 소비를 8000만 kWh 이상 달성</li> </ul> <p>○ <b>스마트 교통 표준화 시범 프로젝트 출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교통운수부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함께 제1차 국가급 서비스업 표준화 시범(스마트 교통 분야)을 발표하고, 물류·출행·신형 인프라 영역에서 총 25개 프로젝트를 선정</li> <li>- 스마트 물류 분야에서는 우편·택배 디지털화, 화물 자동 배송, 지능형 항운, 내륙수로 거점 통항, 무인 집차(集卡) 운송, 전동 선박, 해운 블록체인 전자 선하증권 등 새로운 시범을 추진</li> <li>- 스마트 출행 및 신형 인프라 분야는 공로·수로 일체화 운송, 종합 여객거점의 디지털 관리, 도시 철도·버스 스마트화, 교량·터널의 재해 방지와 지능형 유지보수 등을 규범화 표준으로 발전시켜 효율 제고</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b>중국</b> | <p>○ <b>선전, ‘구체화된 인공지능’ 미래 산업 선점 의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전시가 ‘인공지능+로봇’ 이 결합된 최첨단 분야인 ‘구체화된 인공지능(具身智能)’ 산업을 전략적 신성장 분야로 선정하고, 시 차원에서 로봇기업·플랫폼기업들과 소통하며 기술 협력과 응용 확장에 박차를 가함</li> <li>- 우수한 산업 생태계 및 자본시장 연계를 기반으로, 유비선(优必选)·중칭(众擎)·레취(乐聚) 등 혁신 로봇기업이 본격적으로 사람 형태 로봇, 지능형 센싱(sensing) 기술 등을 개발하여 산업·가정·서비스 등 폭넓은 영역에 적용 추진</li> <li>- 선전증권거래소(深交所)와 증권감독기구가 함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상장 루트 마련을 지원하며, 고성능 부품 조달·데이터 리소스 확보·글로벌 수요 창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도 병행. 기업들은 향후 인공지능 기반 로봇 상용화로 미래 시장 확대 전망</li> </ul> |
|           | <p>○ <b>중국, 가상발전소 대규모 구축, 2030년까지 5000만 kW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에너지국이 가상발전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전력 조정 능력 2000만 kW, 2030년에는 5000만 kW를 달성하도록 제시</li> <li>- 가상발전소는 물리적 발전소 없이 분산전원, 수요관리, 에너지 저장 등의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실시간 전력 균형과 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용 및 전력 안정에 기여</li> <li>- 이번 지침은 민간(民营) 자본의 참여와 기술혁신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금융·정책 지원책을 마련해 각 지역이 유연한 전력 수급과 효율적 시장 운영을 실현하도록 독려</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중국 | <p>○ 하이난 자유무역항, 글로벌 투자 유치···265건 계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세계 500대 기업, 중국 500대 기업, 민영 500대 기업 등과 함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265건(2336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며 대외 개방 확대</li> <li>- 지난 7년간 하이난의 신규 등록 기업 수는 과거 30년 대비를 웃돌 만큼 급증했고, 총 158개국·지역이 투자하며 실제 해외 자본 이용 역시 연평균 36% 증가 추세. 하이난은 封关(봉관, 특별지역으로 완전 분리) 운용을 앞둔 2025년을 기점으로 대폭 개방 강화 전망</li> <li>- 현지 정부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외국인 투자조례》 제정 등 제도형 개방에 주력하며, 관광업·현대 서비스업·하이테크 산업·열대 특색 농업(热带特色农业) 등 4대 핵심 산업 위주로 사업 환경 최적화</li> </ul> |
|    | <p>○ ‘중국 대외 상품무역 및 공급망 변동 지수’ 상하이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단대(复旦大学) 글로벌 공급망 연구팀이 9대 주요 무역 파트너, 22개 상품군을 대상으로 한 1800만 건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중국 대외무역 변동 지수’와 ‘공급망 관계 변동 지수’를 공개</li> <li>- 2022년 1월~2024년 12월 사이, 동남아(ASEAN)·유럽연합(EU)·미국·멕시코 상대로는 무역흑자가, 호주·한국에는 무역적자가 두드러졌으며, 브릭스(BRICS)·일본·캐나다에는 수지 흑자·적자가 교차하는 변동 양상 관찰</li> <li>- 연구진은 동 지수가 기존 통계로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나 변동성을 시계열로 추적 가능하게 해 기업 및 정책 당국이 효율적 대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실시간 진단’ 역할을 하리라 전망</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중국 | <p>○ 국무원,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 시범’ 가속 계획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무원이 상무부(商務部)가 건의한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대련·닝보·샤먼·칭다오·선전 등 9개 도시를 추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li> <li>- 본 방안은 고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서비스업 전반의 규제 혁신, 국제 경제·무역 규범과 연계, 초대형 시장 잠재력 발휘 등을 중점 추진.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부처 규제도 절차에 따라 일시 조정</li> <li>- 각 시범 도시는 해당 분야 인력 양성, 국제 협력, 투자 촉진 등을 강화해 서비스업 고품질 발전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정부 관련 부처는 제도·재정·평가 등을 지원해 개방 성과를 확산</li> </ul>    |
|    | <p>○ 중국 최초 지역 간 수소 화물차 노선 운행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연장 약 1150km에 달하는 충칭(重慶)~구이저우(貴州)~광시(廣西) 노선에 수소 화물트럭 10대가 첫 운행을 실시하고, 가공화학물(化工品)·노트북·자동차 부품 등 물자를 운송하며 정식 가동</li> <li>- 중국석화(中國石化)가 이 구간에 4개 수소충전소를 건설해 안정적인 보급망을 갖췄으며, 지역별 전해수(電解水)·암분해(氨分解) 방식 등으로 청정 수소를 확보. 2027년까지 충전소 40여 곳, 수소트럭 1500대 이상 보급 목표</li> <li>- 물류·에너지·산업을 융합한 ‘서부 육해신통로(西部陸海新通道) 수소 회랑(走廊)’을 형성해, 중장거리 화물 운송 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노리며, 연간 20만 톤 이상의 탄소 절감을 기대</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중국 | <p>○ 신세대 석탄발전 업그레이드로 전력 안전·산업 전환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에너지국이 《신세대 석탄발전 업그레이드 특별 행동 시행방안(2025~2027)》을 발표하고, 고효율·저탄소·유연 운전을 핵심 방향으로 하는 ‘삼개(三改) 연동’ 정책을 강화</li> <li>- 석탄발전은 그간 중국 전력 안전과 열공급(供热) 분야의 주력원(主力源)이었으나, 최근 에너지 전환 가속으로 심층적 개선 요구가 높아짐. 새 방안은 보급기(保供期) 신뢰도, 심층 대응력, 배출 감축, 지능화 제어 등을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추진</li> <li>- 배출 감축과 유연성 향상에 대한 차별화 목표를 제시해, 기존 발전소·신규 설비·시범 사업 각각 맞춤형 기준을 적용. 지능 운영(智能运维)과 예측제어(预测控制) 기술을 결합해 전력시장 환경에서 석탄발전의 안전·효율을 극대화 방침</li> </ul> <p>○ 시장감독총국, 민영기업 지원 대책 37개 항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시장감독총국이 민영기업 지원 강화와 규제환경 최적화를 위해 ‘민영기업 좌담회 정신 이행을 위한 중점 조치 목록(清单)’을 발행하고, 총 37개 구체안을 포함</li> <li>- 불공정경쟁 방지와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공정경쟁심사조례 시행방법(公平竞争审查条例实施办法)》 활용 확대와 경영자집중 심사 간소화를 추진하고, 민생분야 독점·부당 요금 징수 등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li> <li>- 또한, 온라인 광고 합규(合规) 지원,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 등록 수수료 인하 등 다방면의 정비 조치를 진행하며, 소상공인 품질인증·계량 서비스 개선, 기업표준화(企业标准化) 참여 독려 등으로 민영경제의 지속 성장에 기여</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일본 | <p>○ <b>나고야역 남쪽 '사사시마' 연결 지하도 구상 본격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고야시가 나고야역과 역 남쪽 재개발 지구 ‘사사시마 라이브’ (일본어 Sasashima Live)를 지하통로로 연결하는 사업에 돌입하며, 보행 이동성 개선과 관광 유입 확대를 목표로 추진함. 해당 지하도는 약 300미터 길이에 무빙워크(영어 Moving Walk way)를 포함할 예정이며, 대규모 도로로 단절된 주변 환경을 보완하여 지상 혼잡을 덜고 관광객의 동선 다양화 추진</li> <li>- 지하통로에 상업시설은 넣지 않는 대신, 폭넓은 통행 공간을 확보해 재난 시 대피 경로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 검토 중임. 나고야시는 2025년도에 사업자 선정 준비에 착수하고 27년도 이후 본격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며,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설정</li> <li>- 한편, 나고야 철도 측이 추진하는 고층 복합 빌딩과의 연계 통로도 구상 중이지만 기존 지하상가(일본어 地下街)와 직접 연결하지는 않을 방침임. 도시 전체의 보행 동선을 지상·지하로 나누어 선택지를 늘림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성 제고를 기대함</li> </ul> <p>○ <b>파나소닉에너지·고베시, 하수 가스로 물류 탈탄소화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나소닉홀딩스 산하 배터리 사업사인 파나소닉에너지(Panasonic Energy)와 고베시가 2025년도부터 하수 처리장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트럭 운송에 도입하는 협력을 전개함. 하수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정제해 연료로 사용하면 이산화탄소(CO<sub>2</sub>) 배출을 실질 0으로 간주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li> <li>- 동 사는 공급망(영어 Supply Chain) 전반에서 탄소량 절감을 위해 일부 디젤 트럭을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전환했고, 이를 바이오가스로 충전해 CO<sub>2</sub> 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원하는 상황임. 기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EV)로는 무거운 제품 운송 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현 단계에서 바이오가스 충전소가 고베시 내 특정 하수처리장에만 존재해 운행 구간이 제한되는 문제가 남아 있음. 고베시는 일부 잉여 바이오가스를 민간 물류에 확대 공급해 ‘버려지는 자원’을 가치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지역 하수처리장과의 연계를 통해 탈탄소 물류 거점을 늘릴 계획</li> </ul>   |
|    | <p><b>○ 도토리현, 게 어획량 6년 만에 증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겨울철 별미로 알려진 게(カニ)의 주요 산지인 도토리현에서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어획량이 전년 대비 9% 증가한 533톤을 기록함. 이는 6년 만의 상승세로, 소형 암컷 게인 ‘오야가니’ (親がに)와 초기 성장 수컷 ‘와카마츠바가니’ (若松葉がに)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li> <li>- 현 당국은 과거 무분별한 남획(일본어 乱獲)에 대한 반성으로, 조업자들이 어린 게를 포획하지 않는 자율 규제를 강화해 자원 회복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함. 이 같은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서, 현 내 수산업에 긍정적 여파가 확대될 전망</li> <li>- 반면, 품질과 맛이 뛰어나 고가로 판매되는 ‘마쓰바가니’ (松葉がに)는 어획량이 12% 감소해 전체 수익은 전년보다 15% 줄어든 약 22억 엔을 기록함. 다만 현 정부는 다음 시즌에서 대형 게 자원이 회복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으며, 가격 안정과 브랜드 강화에 힘쓸 계획</li> </ul> |
|    | <p><b>○ 아이치현, 인구 5년 연속 감소, 외국인 30만 명 돌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총무성이 2024년 10월 1일 기준 인구 추계를 발표한 결과, 아이치현 인구는 전년 대비 0.23% 줄어든 약 746만 명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이 주된 원인이며, 사회적 인구 유입(전입 초과)만으로 이를 완전히 상쇄하지 못하는 상황</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일본인 인구가 3만5천 명가량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1만 8천 명 늘어나 총 30만 명에 도달함. 아이치현은 자동차·제조업 중심지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나, 장기적으로는 높은 사망자 수와 낮은 출생률로 인구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li> <li>- 현 정부와 지자체는 젊은 여성 유출 방지, 외국인 재원 유치, 지역 교통망 및 농림수산 진흥 등을 함께 모색해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려 노력 중임. 최근에는 시·정·촌 단위로 협의회를 구성해 청년층 정착과 여성 고용환경 개선, 외국인 생활 지원책 등 종합적 대응 방안 검토</li> </ul>   |
|    | <p>○ <b>홋카이도에너지, 하코다테서 전동 자전거 공유 실증 실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솔린 스탠드(Gas Station)를 운영하는 홋카이도에너지(北海道エネルギー)가 하코다테시와 협력해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공유 서비스 ‘헬로 사이클링’을 13개 거점에 배치하여, 도시 내 이동 편의 증진을 시도함.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반납이 가능하며, 15분당 200엔 등의 요금 체계를 채택</li> <li>- 이용객은 원하는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으나, 차량 재배치와 배터리 충전 문제가 운영상의 숙제로 지적됨. 이에 따라 운영사는 유희 차량·인력을 활용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 중임</li> <li>- 홋카이도에너지는 이미 삿포로 외곽 및 기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소규모로 시험 중이며, 인구 감소와 대중교통 축소가 진행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3년간 실증 운용을 거쳐 장기 사업화를 모색할 계획</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일본 | <p>○ 미래우주수송, 홋카이도대 발 ‘레타라’ 와 로켓 엔진 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의 우주 스타트업인 미래우주수송시스템(일본어 将来宇宙輸送システム)과 홋카이도대학교(北海道大学)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 레타라(영어 Letara)가 안전성과 연소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공동 개발에 나섬</li> <li>- 레타라는 고체연료와 액체연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폭발 위험을 낮추고 높은 연소 속도를 실현하는 독자 기구를 확보해 주목받고 있음. 미래우주수송은 이를 활용해 인공위성 발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전략</li> <li>- 양사는 2025년 말 실증 시험을 시작해 엔진 성능 데이터를 축적한 뒤,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이미 일본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 중이며, 차세대 로켓 개발을 통한 상업 위성 발사 사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li> </ul> <p>○ 트럼프 관세 여파 조사, ‘비용 절감’ 등 대응책 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바라키현 소재 조요은행(常陽銀行)의 싱크탱크인 조요산업연구소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현지 기업이 입은 영향을 긴급 조사한 결과, 74.2%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상황</li> <li>- 구체적 대응으로는 30.2%가 비용 절감을 우선하겠다고 응답했으며, 11.1%는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연기한다고 밝혀, 관세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영 전략을 재편 중인 것으로 분석</li> <li>- 이번 발표 전인 3월 조사에서 관세 영향을 우려한다는 기업 비율은 31.7%였으나, 실질 발표 후 크게 상승함. 일부 기업은 고용·임금 조정까지 검토하며, 대미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지역 경제에도 파장을 미치는 양상임</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일본 | <p>○ 가와사키중공업, 도심 항만서 연어 양식 시스템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와사키중공업이 ‘미나토마에(MINATOMAE) 시스템’ 을 선보이며, 도시 항만에서도 양식이 가능하도록 해수를 여과·살균 후 산소를 주입해 밀폐형 가두리에서 순환하도록 설계함. 연어 등 수요가 많은 어종을 고품질 상태로 도심 인근에서 키울 수 있어 물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li> <li>- 기존 해면양식은 수질과 수온, 적조(赤潮) 등 자연적 변수에 취약했지만, 본 시스템은 무균 상태의 해수 제어와 산소 농도 모니터링으로 어류 생존률을 높임. 관상용 수조 등에 적용하던 플랜트 기술을 접목해 약품 사용 없이 안정적 양식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 특징</li> <li>- 가와사키중공업은 육상 양식 대비 초기 비용을 낮추고도 동일 수량의 물에서 최대 6배 이상의 양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7년경 상용화 후 대도시권 식탁에 신선한 연어 등을 공급할 계획</li> </ul>                          |
|    | <p>○ 칸사이 ‘이동 슈퍼’ 성장, 153만 명 고령층 ‘쇼핑 난민’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트럭에 상품을 실어 판매처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 슈퍼’ 가 칸사이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추세임. 농림수산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식료품점과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자동차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65세 이상)이 2부4현 합산 약 153만 명</li> <li>- 京阪그룹(Keihan Group) 등 철도·유통사가 이동 판매 차량으로 식품·과자·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백화점 지하 식품매장의 인기 상품을 실어다가 현장 판매를 시도함. 이는 노인뿐 아니라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도 호응을 얻으며, 수요가 점차 확대</li> <li>-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노선 축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대면 판매와 근거리 이동이 결합된 이동 슈퍼가 지역 경제와 사회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지자체·민간이 협력해 노선 개발, 인력 배치, 서비스 품목 확대 등을 조율하는 체계 요구</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일본    | <p>○ TSMC 효과로 큐슈 반도체 생태계 구축 가속, ‘새 실리콘아일랜드’ 구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TSMC가 일본 구마모토(熊本)에 공장을 짓고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가면서, 큐슈(九州) 지역이 반도체 산업 부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단순한 부품 제조에 국한되지 않고, 로봇·AI 등 다른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자 노력</li> <li>- TSMC 현지 법인인 JASM은 올해 신규 인력 527명을 채용해 규모를 확장했고, 이와 연계해 반도체 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큐슈에 집적함으로써 기술 협력과 데이터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 대학 연구기관 역시 새 반도체 소재 개발, 장비 국산화 등에서 스타트업을 배출하며 생태계 성장을 주도</li> <li>- 사가대(佐賀大) 교수가 창업한 다이아몬드 반도체 관련 기업 등 혁신 소재 분야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실리콘아일랜드(Silicon Island)’ 라는 과거 별칭을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짐. 기업·대학·지자체가 협력해 반도체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투자 인센티브 마련 등에 나서는 상황</li> </ul> |
| ASEAN | <p>○ 아세안, 지리경제학 태스크포스 설립으로 관세 갈등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 경제장관들이 미국 관세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열고 지리경제학 태스크포스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무역·투자·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li> <li>- 동 작업반은 관세 분쟁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역 구조 재편과 투자 다변화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 발굴에 집중함으로써 역내 시장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li> <li>- 아세안은 미국과의 건설적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디지털 기술·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분야 협력도 모색하여 역내 경제 회복력을 강화할 계획</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ASEAN | <p>○ 아세안과 영국, 고위관리회의 통해 미래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과 영국은 제4차 아세안-영국 고위관리회의에서 2022~2026 아세안-영국 행동계획 이행률 95% 달성이라는 성과를 공유하며, 정치·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을 지속 확대</li> <li>- 양측은 해양안보·사이버안보·대테러 등의 안보 협력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경제·녹색금융 등 경제 분야 공동 발전을 강조하고, 교육·보건 등 사회·문화 분야 협력도 심화</li> <li>-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스마트시티 등 핵심 과제 논의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2026년 대화관계 5주년 기념행사를 추진</li> </ul> |
|       | <p>○ 아세안+3, 긴급자금지원제도 운영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세안+3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원국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지원제도를 공식 출범함으로써 역내 금융 안전망을 한층 강화</li> <li>- 치앙마이 다자화 이니셔티브(CMIM)와 함께 유동성 부족 문제에 대응할 체계를 보완하고, 금융 위기 예방 및 공동 번영 달성을 위한 협력 모델을 발전</li> <li>- 동시에 미국 관세로 인한 역내 경제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하여 무역 활성화, 디지털 투자, 기후 대응 분야에 집중해 회원국들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도 논의</li> </ul>  |
| 말레이시아 | <p>○ 말레이시아, 미국 관세 모니터링 통해 반도체 산업 보호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관세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미국 관세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산업 경쟁력을 사전에 보호하겠다고 발표하며 선제적 대응 의지 표명</li> <li>- 국가투자위원회(MPN)는 국가반도체전략(NSS) 재원 마련 및 신산업발전계획(NIMP) 2030과의 연계를 중점 검토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신규 투자와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논의</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말레이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와르 총리는 산업 개혁을 통한 지속 성장 기반 조성 과 함께 통합 친환경 산업단지(KIGIP) 개발 등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가 경제 개혁을 가속</li> </ul> <p>○ 말레이시아 제조업연합, 미국 관세 유예 기간 정부 전략 수립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제조업연합(FMM)은 미국의 90일 상호 관세 유예가 최종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자국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전략 마련을 요구</li> <li>- 현지 제조업체들은 수출 비용 상승과 공급망 혼선을 우려하고, 정부 지원책 확충·지역 공급망 안정·미국과의 교류 강화 등을 통해 관세 여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li> <li>- FMM은 고무 제품·기계·전자 분야별 맞춤형 조치, 판매서비스세(SST) 범위 확대 연기, 국가공급망위원회 설립 등 구체 방안을 제안하며 실효성 높은 대응 추진을 강조</li> </ul> |
| 베트남   | <p>○ 베트남, 미국 관세 유예 이후 무역협상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은 미국의 46% 관세 부과가 유예된 직후 호 득 폭 부총리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협의를 통해 무역협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관세 합의 등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제도 구축에 착수</li> <li>- 동 무역협정은 장기적으로 베트남 수출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대미 무역 구조 형성을 지원하며, 상호 호혜적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음</li> <li>- 베트남 항공사 비엣젯(Vietjet)이 미국 기업 에이브이 에어파이낸스와 3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 분야 확장 가능성을 시사</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베트남   | <p>○ 태국, 미국과의 무역 협상 전략 수립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차이 춘하바지라 태국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비해 국익을 지키면서도 상호 호혜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무역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선언</li> <li>- 태국은 무역적자 해소와 투자 기회 발굴을 위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비관세장벽 완화, ▲원산지 심사 강화 등 5대 핵심 의제를 설정하고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li> <li>- 정부는 미국 관세 압박이 미국 내부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며, 향후 1~5년 내 실질적 합의를 통해 무역 불균형과 시장 개방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li> </ul>  |
| 인도네시아 | <p>○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와 협력 강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글로벌 사우스(개도국 중심 지칭)를 대표하는 두 나라가 세계 질서 변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협력 의지 표출</li> <li>- 양국은 팔레스타인 독립,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이슬람권 내부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li> <li>- 인도네시아는 경제·보건·에너지·국방·건설·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튀르키예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하고, 프라보워 대통령이 안탈리아 외교 포럼에 참석해 구체적 사업 협력 및 외교 활동을 전개</li> </ul> |
| 캄보디아  | <p>○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국가 간 QR 결제 시스템 2단계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이 아세안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양국 간 QR 결제 시스템 2단계를 공식 선보이고, 결제 편의성과 보안성을 한층 높인 금융 인프라</li> </ul>  |

| 국가   | 제목 및 주요 내용   |
|--|--|
| <p style="text-align: center;"><b>캄보디아</b></p> | <p>구축에 돌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로써 약 700만 명 이상의 상인들이 상호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분야와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역내 금융 통합과 디지털 전환 가속에 기여</li> <li>- 양 중앙은행 총재는 간편 결제 확산이 아세안 경제공동체 비전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역량을 결집할 계획</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b>필리핀</b></p>  | <p>○ 필리핀, 글로벌 경제 위험 속 기준금리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중앙은행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여 5.50%로 조정하고,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li> <li>- 3월 물가상승률이 5년 만의 최저치인 1.8%를 기록하면서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경제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li> <li>- 필리핀 정부는 올해 6~8% 성장 목표를 제시했으나, 미국 관세 등 대외 요인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무역 및 금융 정책 조정을 통해 글로벌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전개</li> </ul>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